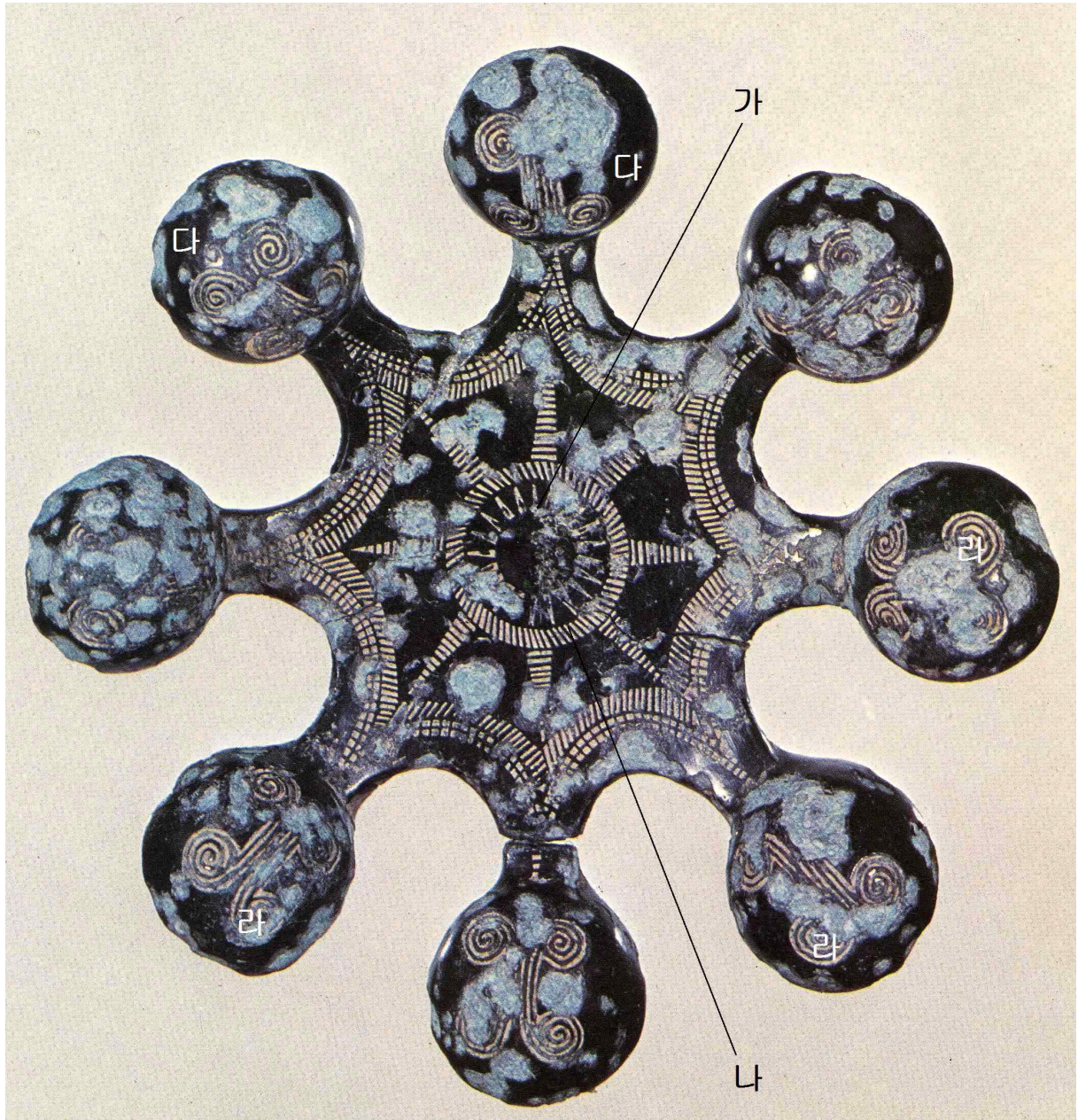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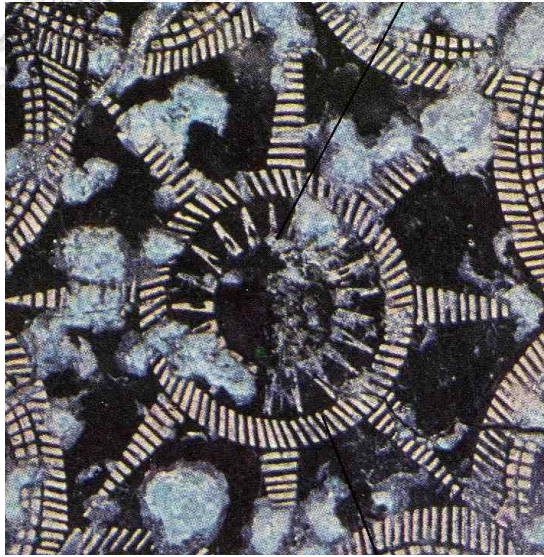
제55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30일)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 팔주령八珠鈴 문양 연구

조원교 | 103호 고조선실 | 18:00~18:30



도1.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 八珠鈴, 청동기시대, 지름 12.3,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국보 제146호, 『한국미술전집(1 원시미술)』 (1973년, 서울 동화출판공사), 도 91.



도1-1. (도1)의 부분

청동기시대 기(화생과 연화화생 표현 포함) 표현은 동경銅鏡 등 청동기에 ‘짧고 조밀하게 직선문·원문圓文·삼각문(거치문)·과형문(과문)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앞 시기(신석기시대)의 것(형식, 모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앞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세밀, 다양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응용, 변형시킨 경우도 많다. 표현이 유리한 금속이라는 조건에다 표현, 기술이 축적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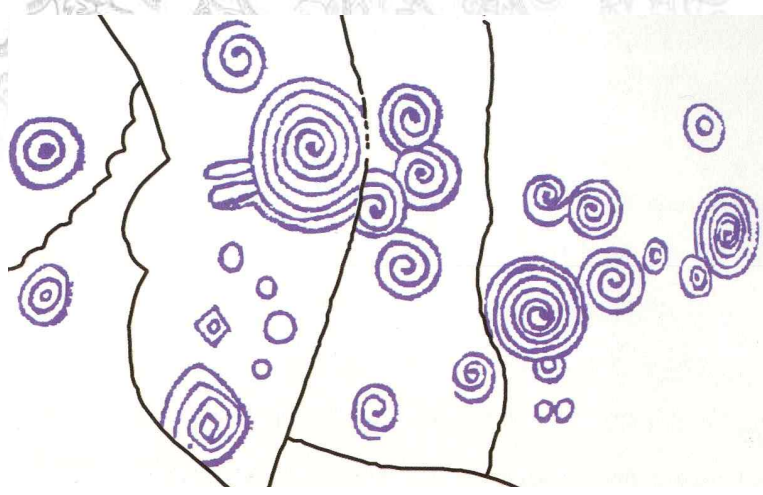


도2.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기(일괄一括), 청동기시대, 동경 지름 右 18.0, 국보 제143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청동기 문화』, 1992년, p.35.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 거울(도1)의 중앙의 원문圓文(가)(나)과 그 안 직선문과 삼각문(거치문) 등은 태양 또는 태양의 빛이나 그 기·화생을 표현한 것이다. 이 두 원<(가)(나)> 가운데 안의 원圓에서는 20방향으로 바깥 원(나)에서는 8방향으로 기·화생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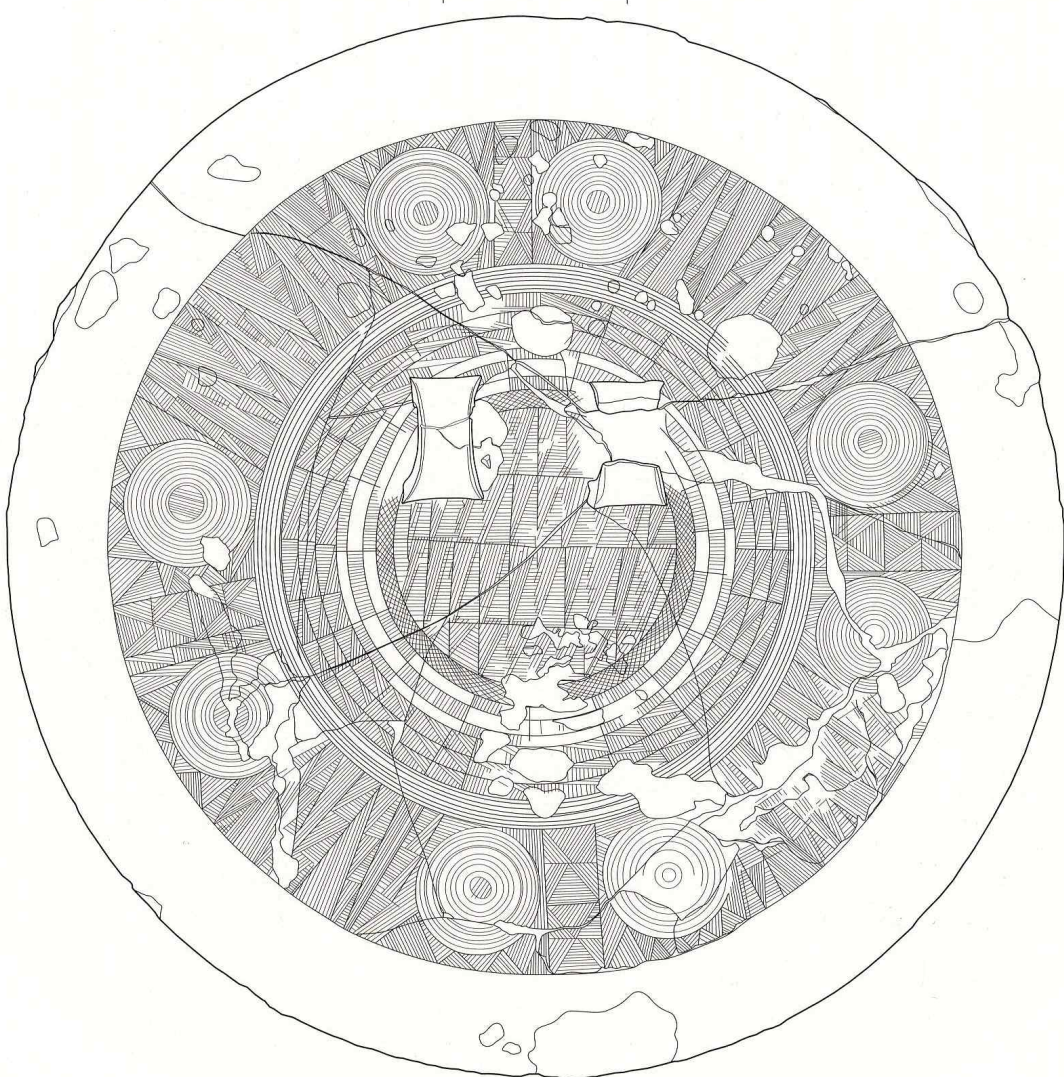
바깥쪽 8개의 작은 구형球形(도1-다)은 중앙 원(큰 태양)의 기氣 특히 화생을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8개 작은 구형은 작은 태양 표현이다.

이상의 판단에서 보면 함께 출토된 쌍두령(도2의 중앙)은 중앙으로부터 기·화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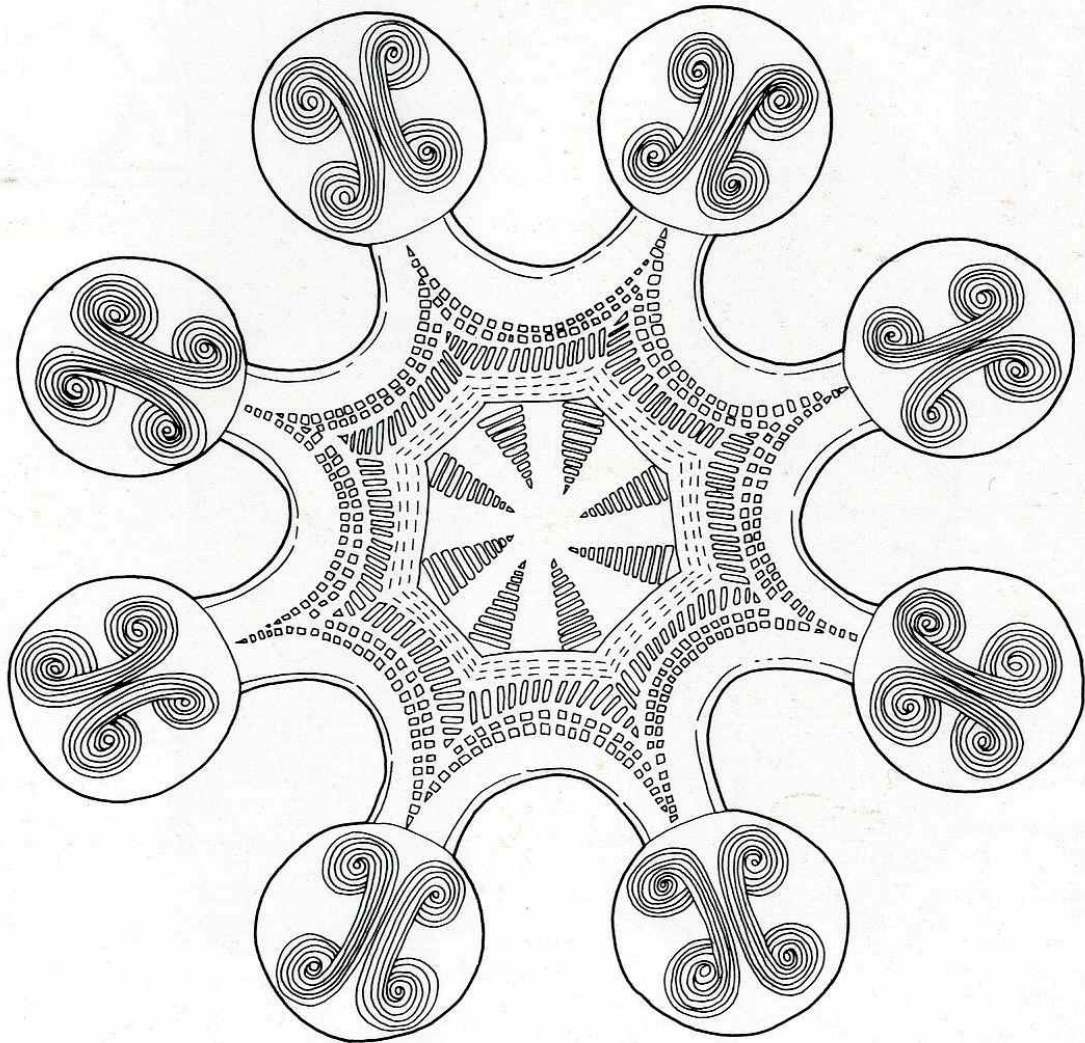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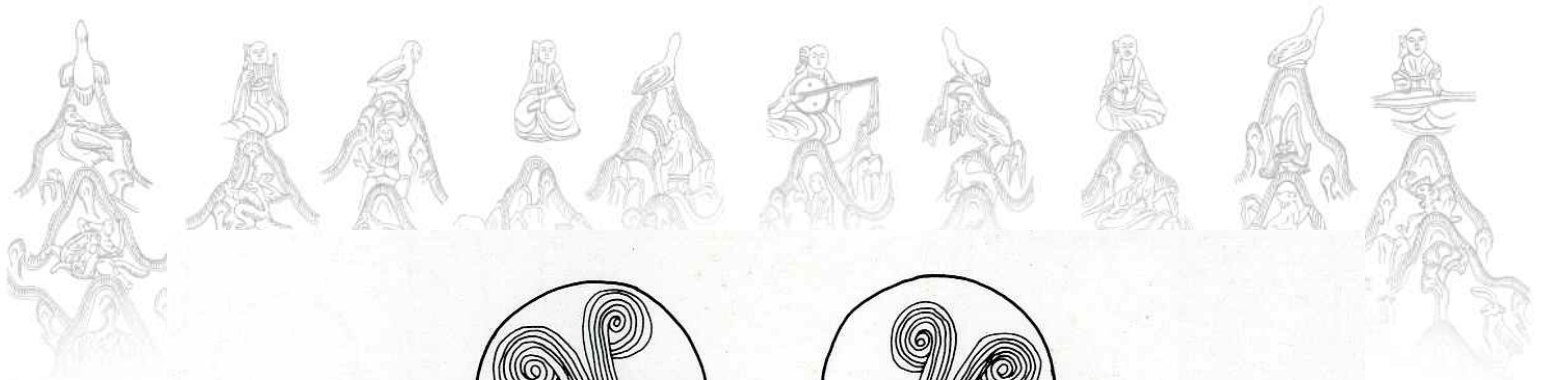


도3. 무산 지초리 청동기시대 암각화, 전호태, 『환문총環文塚』
(서울 김영사 출판, 2014), p.83.

이 8방향이 아닌 좌우 2방향만 전개된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앙에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것 즉 생략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 거울의 8개 원문 즉 8개의 작은 태양마다에는 안에 일종의 당초문(사실상 연화문) (도1-라)이 있다. 이 당초문 (도1-라)은 작은 태양(도1-다) 내부에 존재하는 거의 표



도4. 전傳 영암 출토 청동 거울銅鏡, 지름 13.3, 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거푸집과 청동기』, 2011년, p.78.



도5. 傳 상주 출토 청동 팔주령, 실물은 행방 불명 상태,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 (1992), p.103. 현이다. 이는 이 문양이 중앙의 원(큰 태양) 안 여러 문양들과 연결된 데서도 입증 된다. 이 팔주령의 원圓을 포함한 여러 문양은 상호 동격·호환·교호하며 연계 관계에 있다.

(도1-라) 문양이 태양문인 것은 무산 지초리 암각화(도3)에서도 확인 된다. 지초리 암각화에는 (도1-라) 문양과 흡사한 문양 이외에도 '동심원문' 등 여러 문양이 있다. 모두 태양을 여러 가지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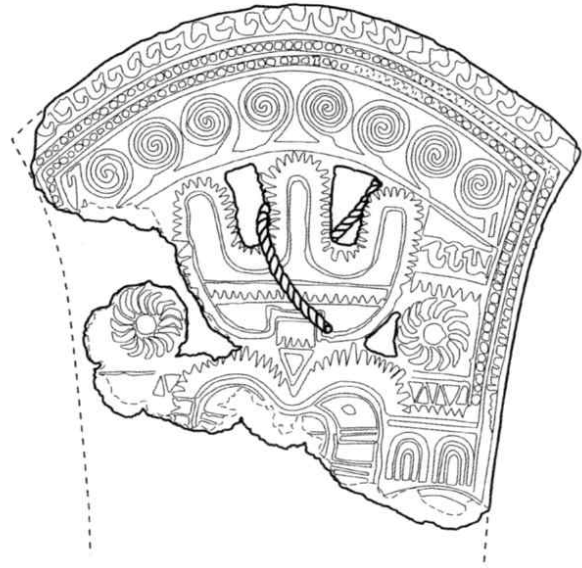
청동기시대에 이 팔주령처럼 안에서 바깥쪽으로 기를 표현하고 동시에 화생하는 모습을 표현한 경우는 전傳 덕산 출토 팔주령¹⁾·전傳 상주 출토 청동 팔주령(도2),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 칠주령²⁾, 傳전 논산·傳전 영암 출토 동경銅

1)전傳 충남 예산 덕산德山 출토 동경 등 일괄 국보 제255호, 도圖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 . p.36 소수所收.

鏡 등이다. 이 표현이 우리나라 전역에 보편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매우 세밀하고 다양한 표현 양상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경우처럼 ‘원原 중국 지역’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의 독자적 모습이다. 이 표현은 같은 시기 ‘원原 중국 지역’ 청동기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가 원 중국 지역과 엄격하게 다른 모습, 독창적 문화 역량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 표현들 역시 이후 전개되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토기·금속기 등 문화유산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영광 화평리 출토 청동기, 固城 동외동 출토 새문양 청동기³⁾, 전傳 의령 출토 수레바퀴모양 가야 토기(도4), 공주 송산리 고분 출토 백제 기대, 강릉 초당동 출토 토기⁴⁾ 등에서 보듯 우리 역사문화유산으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여러 문명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 소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도6. 전傳 영광 화평리 출토 청동기, 길이 5.7, 국립나주박물관 소장,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2013년, p.75.

<참고문헌>

- 조원교, 1995.12, 「연화화생에 등장하는 장식문양 고찰」, 『미술자료』 56호(국립중앙박물관).
 조원교, 2000.12,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에 관한 연구」, 『미술자료』 65호.
 조원교, 2013.12, 「고구려 기와 문양에 대한 연구」, 『고고학지』, 제 19집(국립중앙박물관).
 조원교, 2014.12, 「한국 고대古代 기氣 표현에 대한 연구研究 -신석기시대 토기土器·청동기시대 청동기靑銅器·삼국시대 토기를 中心으로-」, 『문화문화와 예술연구藝術研究』 第四輯(서울 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12)
 조원교, 2016.8,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百濟金銅大香爐 연구』(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2)부산 복천동 출토 청동 칠주령 삼국시대(가야), 5세기, 고 11.2, 부산대학교박물관소장, 도圖는 『고고미술古墳美術』(서울 중앙일보사, 1985), 도 110 소수所收.

3)고성 동외동 출토 새문양 청동기는 삼국시대(가야), 4세기, 길이 8.9cm, 도圖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대국가韓國古代國家의 형성形成』 p.129 소수.

4)강릉 초당동 출토 토기는 삼국시대, 고 13.1, 국립춘천박물관, 『흙에서 깨어난 강원의 신라 문화』, 2013년, p.50 소수.

옛 초상화로 보는 우리 옷

민보라 | 202호 회화실 | 18:00~18:30

조선시대의 단령제도 옛보기, 시복(時服)과 상복(常服)

단령團領은 ‘둥근 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둥근 깃을 단 조선시대 관리들의 대표적인 겉옷[袍]을 말한다. 조선시대 백관百官들이 착용했던 시복時服과 상복常服은 제복祭服, 조복朝服, 공복公服과는 용도상 구별되는 중요한 관복이다. 공무를 볼 때 입는 시복時服, 특정한 의례에 입는 옷이 상복常服이다. 일반적으로 상복은 흑단령에 홍배를 단 것이고, 시복은 홍단령에 홍배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15세기: 도대체 상복은 무엇이고 시복은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 건국 이후 15세기 동안에는 단령의 용도와 색상은 일정한 규정이 없었다. 태종 11년(1411)의 기록에서는 관리들의 검소함이 지나쳐 남루해 보이니 회색, 옥색 옷을 금하고 채의彩衣를 입도록 규정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중국의 사신을 맞을 때 백관들이 착용하는 복식과 관련하여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오례의五禮儀』를 보면 동일한 의례에 입는 옷을 표기하면서도 실록에서는 ‘시복’으로 오례의에서는 ‘상복’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단령의 색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으나 조정의 위계를 위해 열은 색상은 금하고 짙은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시복과 상복의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흑단령과 잡색단령의 이중구조가 성립되었다. 세종 28년(1446)에는 상참常參과 조참朝參에 참여하는 백관들에게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였다. 색상에 제한이 없었던 단령을 흑색으로 규정하여 의례용과 집무용으로 용도에 따른 이중구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단종 2년(1454)에는 홍배제도가 완성되었다. 당시는 당상관만 홍배를 사용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색상의 제한이 없던 시기였으므로 결국 홍배는 의례용이나 집무용이거나 간에 모두 달아야했다.(그림1)



그림 8. 1455년 단령, 신숙주 초상

16세기: ‘시복 흑단령’ 과 ‘상복 홍단령’

『미암일기眉巖日記』에서는 주인공 유희춘柳希春(1513~1577)이 상참이 있는 날 흑단령 차림으로 입궐하고, 의례를 마친 후 홍단령으로 갈아입고 부서로 돌아간 기록이 있다. 즉, 이 시기에는 단령이 용도에 따라 색상과 명칭이 구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중종 13년(1518)에는 상참, 조참 또 배사시에 시복 흑단령을 착용하고 경연과 같은 다소 편한 자리에서는 상복을 착용하라고 하여 시복과 상복의 용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중종과 선조대의 공신상 및 초상화에서 보이는 흑단령은 당시의 시복으로 볼 수 있으며,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1550)에서 상복 홍단령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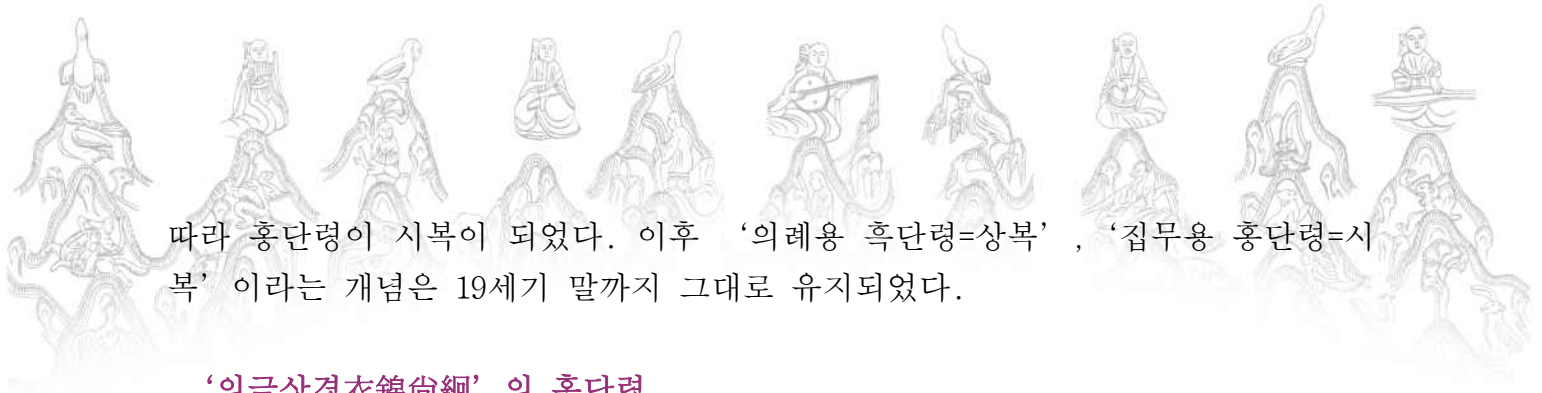
그림 2. 16세기 시복 흑단령, 이우 초상(1469~1517)



그림 3. 16세기 상복 홍단령, 〈호조낭관계회도〉

17세기 이후: ‘상복 흑단령’ 과 ‘시복 홍단령’

임진왜란 직후 조정에서는 단령의 색상 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임란 전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지만 광해군(1610)에 단령의 명칭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진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중국의 칙사를 영접하는 의례에는 흑단령을 입어야 마땅하다. 예조판서 이정구李廷龜(1564~1635)는 현재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하는데, 『오례의』를 보니 상복으로 기록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결국 이정구는 『오례의』의 상복을 흑단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홍단령이 시복이 되었다. 이후 ‘의례용 흑단령=상복’, ‘집무용 홍단령=시복’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의금상경衣錦尙綱’의 홍단령

우리나라 제도에 당상관은 사·라·능·단으로 속옷을 만들고 단령은 그대로 국산 베를 사용했으니 이는 아마도 ‘의금상경’의 뜻을 취한 것인가보다.

—이륙李陸(1438~1498)의 『청과극담靑坡劇談』

의금상경은 화려한 비단 위에 소박한 홀옷을 껴입어 문채의 화려함을 가린다는 뜻이다. 즉, 내면의 덕이 비단처럼 찬란해도 군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은은하고 담백해야한다는 중용의 뜻과 같은 말이다. 17세기의 출토복식에는 겉감은 수수한 옷감으로 만들었지만 안감은 겉감과 대조되는 화려한 무늬의 옷감이 사용된 경우가 종종 보인다. 검소함을 상징하는 홍단령의 색상이 바로 조선 전기의 토홍색과 담홍색이다. 따라서 17세기 시복 홍단령은 옅은 분홍색을 띄고 있고, 무늬가 없는 소박한 견이나 면 등의 소재로 만들어졌다. 홍단령을 입고 있는 많은 백관들의 초상화에 무늬 없는 소박한 단령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정호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장상훈 | 119호 조선3실 | 19:00~19:30

김정호金正浩(1804?~1866?)가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그의 업적 가운데 단연 정점에 있는 것으로, 평생에 걸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는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국토를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의 지도를 1권의 책으로 엮었다. 각 권의 책은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펴고 접을 수 있게 제작하여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 크기의 대형 전국지도가 구성된다.

김정호는 국토의 뼈대가 되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국토의 자연 환경을 정밀하게 묘사했다. 백두산에서 비롯되어 방방곡곡으로 이어진 산줄기의 모습을 크기와 중요도에 따라 섬세하게 표현했고, 그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도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고을과 도로 등 여러 인문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행정 정보를 비롯하여 군사·경제·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국토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지리 지식을 제공했다.

오늘날의 지도와 같이 다양한 기호를 활용하여 11,5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지명들을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은 《대동여지도》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이다. 도로에 표시된 거리 표시도 《대동여지도》의 편리함을 더해 주는데, 10리 간격으로 점을 찍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동여지도》를 목판 인쇄본으로 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목판본 지도는 필사본 지도에 비해 많은 수량을 비교적 손쉽게 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정확한 지리 정보가 일단 목판에 반영되면 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림 1. 《대동여지도》



제55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30일)

변방을 노래한 그림

이재호 | 202호 회화실(산수화실) | 19:00~19:30

함경도는 함흥咸興과 경성鏡城에서 한 자씩을 딴 지명으로 조선시대에는 경성 대신 길주吉州를 꼽아 함길도라 부르거나 북쪽 변경의 요충지라는 의미로 ‘북관北關’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함경도의 두만강 하류는 세종 때 육진 개척으로 비로소 조선의 강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많은 여진족이 조선인과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시애의 난(1467), 니탕개의 난(1583)을 비롯한 반란과 침략이 끊이지 않았으며 임진왜란 중에 회령의 국경인鞠景仁(?~1592) 등이 왜군에게 왕자들을 넘기는 등 불온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함경도는 땅이 척박하여 생활이 곤궁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과중한 병역 의무까지 더해져 조정과 지역민의 마찰이 심했던 것입니다.

조정이 함경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병자호란 이후였습니다. 국경 지역의 만주족(청 태종 때 민족명을 바꿈)이 만주와 중원으로 대거 이주해 분쟁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청이 조만간 쇠퇴하여 그들의 발상지인 영고탑寧古塔으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 만주족이 함경도를 경유할 위협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함경도를 감싸 안아 국가에 대한 충성을 심기 위해 1664년(현종 5) 길주에서 실시된 과거 시험 장면은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덕수4065)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과 합격자는 3명에 불과한데 비해 무과 합격자가 300명에 이른 점에서 함경도를 국방의 최전선으로 여긴 조정의 시각이 잘 드러납니다. 이 때 시험관으로 파견된 김수항金壽恒은 함경도 관찰사 민정중閔鼎重 등 지방관들과 모임을 가지고 시를 썼고 동행한 화가 한시각韓時覺(1621~?)이 북관의 풍경을 그림으로 덧붙여 《북관수창록北關訓唱錄》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화첩에는 험준한 봉우리가 이어진 북변의 풍광이 청록산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한 남구만南九萬(1629~1711)은 함흥과 함경도의 명승 각 열 곳을 선정하여 「함흥십경도기」와 「북관십경도기」를 쓰고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남구만은 함경도가 이성계의 고향이자 조선 건국의 모태가 된 땅임을 명승을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국경과 해안의 방어시설 가운데 경치가 빼어난 곳을 명승으로 삼아 지역의 인문·자연을 노래했습니다. 《함흥내외십경도咸興內外十景圖》(동원3283 및 신수15776)에 실린 명승들은 기행문학의 유행에 힘입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선 후기 선비들은 시와 그림을 통해 함경도를 불온한 변경에서 아름다운 북쪽 산하로 재인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긴박한 대립에서 벗어나 함경도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